

# BASF, Ticona의 Nylon 6/6 인수

지적재산권 · 고객리스트만 인수 ... 제조공장 및 장비는 인수 제외

BASF가 Nylon 사업 확장을 목표로 2003년 말 Ticona의 Nylon 6/6 EP(Engineering Plastic) 사업을 인수했다.

BASF는 제조공장이나 장비 등 제조관련 자산을 제외하고 Celanese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Ticona의 Nylon 6/6 EP 제품의 저작권, 기술 노하우 및 라이선스 등 이와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고객리스트를 인수할 계획이다.

Celanese는 장기 매출목표를 달성하기에 Critical Mass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Nylon 6/6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Nylon 6/6과 관련한 브랜드는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Ticona의 2002년 Nylon 6/6 사업 매출액은 총 4500만유로에 달했다.

Ticona는 인수기간 동안 BASF를 대신해 텍사스주 Bishop 및 켄터키주 Florence 플랜트에서 Nylon 6/6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Ticona의 수요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.

그러나 Ticona는 다른 Nylon 생산라인을 매각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현재 Florence 플랜트를 확장하고 있으며 북미에 위치한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.

BASF는 Ticona의 Nylon 6/6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EP(Engineering Plastic) 사업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실제로 BASF는 Ticona의 기존 생산설비, 장비 및 직원을 그대로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막대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BASF는 2004년 초 Ticona의 Nylon 6/6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게 되며 고객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Ticona와 협력을 유지할 방침이다.

한편, Nylon-66 EP는 주로 자동차 엔진부품, 커넥터, 냉각시스템, 변속기 부품,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액 저장탱크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, BASF는 Nylon Fiber 사업을 Honeywell의 Nylon Plastic 사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2003년 초 Honeywell의 Nylon-6 EP 사업을 인수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18>